大韓外官科學會誌 : 第13卷 第1號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Vol. 13, No 1, February 2000.

외관과(外官科) 외래환자의 통계적 관찰

金倫範*

ABSTRACT

A Statistics Study of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Kim Yoon-bum

We analyzed statistics study in 1695 patients, who had visited to the Dept. of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Hospital of Downtown Orir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from March, 1996 to July, 1998.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Distribution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classification was 43.48% in ophthalmology, 16.70% in rhinology, 5.72% in laryngology, 17.94% in dermatology and 16.17% in otiatrics.

2. Ophthalmology group were 31.93% males and 47.90% females in 10 years old within. In treatment term, opthalmology patients who had treated for 1 month within was 59.70%. Strabismus and visual disorder was the most common ophthalmo-disease.

3.Rhinology group were 30.00% males in 10 years old within and 21.56% females in 21-30years old. In treatmentm, rhinology patients who had treated for 1 month within was 53.71%. Rhinitis and sinusitis was the most common rhinio-disease.

4. Otiatrics group were 30.54% males in 41-50 years old and 31.78% females in 51-60 years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外官科學敎室

old. In treatment term, otiatrics patients who had treated for 1 month within was 53.28%. Tinnitus, hearing loss and otitis media was the most common otiatrics-disease.

5. Laryngology group were 29.27% males in 31-40 years old and 28.57% females in 51-60 years old. In treatment term, Laryngology patients who had treated for 1 month within was 91.75%. Epipharyngitis and abnormal sensation pharyngolarylgeal region was the most common laryngo-disease.

6. Dermatology group were 39.82% males and 39.79% females in 21-30 years old. In treatment term, dematology patients who had treated for 1 month within was 83.55%. Acne and Pruritus was the most common ophthalmo-disease.

Ⅰ. 緖 論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에 여러 연구소에서는 앞날에 대한 예측 보고서를 내놓고 있으며 한의학계도 역시 미래 의료시장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1996년도에 한의학연구원에서는 '한의학 중장기 예측 기획 연구보고서'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9]. 국내의 의료시장도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일원화 그리고 2000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의약분업 등으로 급변기에 놓여 있으며 한의학계도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입장이다.

사회의 발전과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새롭고 다양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나고 있어 의학계도 진단에 따라 질병 연구와 치료에 나름대로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띄면서 질병 정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의학계에서도 기초 분야는 물론 임상에 있어서도 진료영역에 따라 분과되어 있다. 각 분과 중에서 외관과는 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질환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경희의료원 연보[1]에 따르면 한의과 대학 부속 한방병원 외관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보면 1996년도는 1995년에 비해 외래신환이 -5.7%, 재래환자는 -21.6%, 연인원은 -20.1% 급감했고 1997년은 1996년도에 비해 연인원이 0.4% 증가했다. 부속병원 안과는 1996년도 같은 기간동안에 신환이 8.3%, 재진 9.4%, 연인원 6.9% 였으며 피부과는 신환 -0.4%, 재래 11.2%, 연인원 10.2%, 이비인후과는 외래신환이 8.3%, 재진 6.8%, 연인원 6.9% 였다. 시내한방병원은 신환 23.1%, 재래 40.5%, 연인원 37.8%의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 자체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의해 나온 결과이지만 한편으로 한방의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양방에 비해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수의 신장세가 급증했음을 말해주고 있으나 97년 말부터 국내에 발생된 경제위기 상황으로 최근 한의계의 진료 실정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의학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학문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현 의료상태를 분석해 보고 과거의 진료형태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병원 단위의 환자 통계는 인구집단의 유병율이나 발생분포 그리고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성향 혹은 기대감 등으로 인하여 현재 한의학의 직면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한방에 대한 기대치, 선호도 등을 간접적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연구 방향 조정에도 참고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려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거 외관과학의 임상에 대한 통계분석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1996년부터 1998년 7월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시내한방병원 외관과에서 진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분포, 질환별유형 등에 관한 자료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觀察對象 및 方法

1. 對象

1996년 3월 1일 부터 1998년 7월31일 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시내한방병원 외관과에 내원한 신환자중 眼, 耳, 鼻, 口舌, 皮膚 질환을 앓고 있는 자 16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方法

① 외래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초진 당시 성별, 연령, 진단명(疾患名 혹은 證名),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신환자들을 분석하였다.

② 안, 이, 비, 구설, 피부 질환 중에서 악성

종양 질환은 치료과정 중에서 일관되게 한방 요법을 시행 할 수 없었으므로 연구 보고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③ 진단명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질환을 선택하였다.

Ⅲ. 結 果

1. 안, 이, 비, 인후, 피부과의 질환군별 분포도

조사 대상 환자중에서 각 질환군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안과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환자중에서 737명(43.48%)으로 가장 높았으며 피부질환이 304명(17.94%), 코질환 283명(16.70%), 귀질환 274명(16.17%), 구강질환 97명(5.72%)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Distribution	Ratio
Ophthalmology	737	43.48%
Rhinology	283	16.70%
Laryngology	97	5.72%
Dermatology	304	17.94%
Otiatrics	274	16.17%
Total	1695	100%

2. 眼질환의 분포도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737명의 조사 대상자중 남자는 45.05%였으며 여자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4.95%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0세 이하의 남자가 31.93%, 여자는 47.90%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그 다음으로 10대 , 20대, 50대 순으로 남자환자의 연령별분포를 보였으며 여자의 연령분포 역시 남자와 동일하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n Sex, Age of Ophthalmology Patients.

Male (Ratio)	Distribution	Female(Ratio)
106 (31.93%)	0-10 years old	194 (47.90%)
72 (21.69%)	11-20	69 (17.04%)
57 (17.17%)	21-30	33 (8.15%)
30 (9.04%)	31-40	29 (7.16%)
21 (6.33%)	41-50	24 (5.93%)
46 (13.86%)	51-60	56 (13.83%)
332 (45.05%)	Total sex ratio	405 (54.95%)

2) 치료기간별 분포

치료기간은 1개월이내가 57.7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1개월이상 2개월이내가 17.10%, 2개월이상 3개월이내가 7.73%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n Treatment Term of Ophthalmology Patients.

Term	Number	Ratio
1 month within	440	59.70%
1-2	126	17.10%
2-3	57	7.73%
3-4	29	3.93%
4-5	30	4.07%
6 month over	55	7.46%
Total	737	100%

3) 질환별 분포

안과 질환중에서 사시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안과 환자중 54.0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시력장애가 26.46%, 결막염 4.48%, 녹내장 2.71%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4).

Table 4. Frequency of Ophtalmo-Disease.

Classification	Frequency
Strabismus	398 (54.00%)
Visual disorder	195 (26.46%)
Conjunctivitis	33 (4.48%)
Glaucoma	20 (2.71%)
Dry eye	18 (2.44%)
Color vision deficiency	17 (2.31%)
Cataract	13 (1.76%)
Ptosis	12 (1.63%)
Uveitis	8 (1.09%)
Epiphora	6 (0.81%)
Retinal detachment	6 (0.81%)
Vitreus opacity	5 (0.68%)
Retinopathy	6 (0.81%)

3. 鼻질환의 분포도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283명의 조사 대상자중 남자는 45.94%였으며 여자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4.06%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0세 이하의 남자가 30.00%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여자는 20대 21.56%로 높았다. 빈도가 높은 순서로 남자환자의 연령별분포는 30대, 1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연령분포는 30대, 40대, 10대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5).

Table 5. Distribution on Sex, Age of Rhinology Patients.

Male	Distribution	Ratio
39 (30.00%)	0-10 years old	20 (13.07%)
23 (17.69%)	11-20	21 (13.73%)
21 (16.15%)	21-30	33 (21.56%)
24 (18.46%)	31-40	32 (20.92%)
10 (7.69%)	41-50	22 (14.38%)
7 (5.38%)	51-60	16 (10.46%)
6 (4.62%)	61 years oldover	9 (5.88%)
130 (45.94%)	sex ratio	153 (54.06%)

2) 치료기간별 분포

치료기간은 1개월이내가 53.7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1개월이상 2개월이내가 35.69%, 2개월이상 3개월이내가 3.89%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Distribution on Treatment Term of Rhinology Patients.

Term	Number	Ratio
1 month within	152	53.71%
1-2	101	35.69%
2-3	11	3.89%
3-4	10	3.53%
4-5	6	2.12%
6 month over	3	1.06%
Total	283	100%

3) 질환별 분포

비과 질환중에서 비염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비질환 환자중 51.6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부비동염이 47.00%, 비출혈 1.41%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7).

Table 7. Frequency of Rhino-Disease.

Classification	Frequency
Rhinitis	146 (51.60%)
Sinusitis	133 (47.00%)
Epistaxis	4 (1.41%)

4. 耳질환의 분포도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274명의 조사 대상자중 남자는 60.95%였으며 여자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9.05%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의 남자가 30.54%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여자는 50대 31.78%로 높았다. 빈도가 높은 순서로 남자환자의 연령별분포는 50대, 6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연령분포는 60대, 30대, 40대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8).

Table 8. Distribution on Sex, Age of Otiatrics Patients.

Male	Distribution	Ratio
9 (5.39%)	0-10 years old	4 (3.74%)
3 (1.80%)	11-20	1 (0.93%)
22 (13.17%)	21-30	6 (5.61%)
23 (13.77%)	31-40	20 (18.70%)
51 (30.54%)	41-50	17 (15.89%)
32 (19.16%)	51-60	34 (31.78%)
27 (16.17%)	61 years oldover	25 (23.36%)
167 (60.95%)	sex ratio	107 (39.05%)

2) 치료 기간별 분포

치료기간은 1개월이내가 53.2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1개월이상 2개월이내가 25.18%, 2개월이상 3개월이내가 12.78%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Distribution on Treatment Term of Otiatrics Patients.

Term	Number	Ratio
1 month within	146	53.28%
1-2	69	25.18%
2-3	35	12.78%
3-4	12	4.38%
4-5	7	2.55%
6 month over	5	1.82%
Total	274	100%

3) 질환별 분포

이과 질환중에서 이명, 난청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이질환 환자중 81.3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중이염이 15.33%, 현훈 2.55%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10).

Table 10. Frequency of Otiatrics-Disease.

Classification	Frequency
Tinnitus, Hearing loss	223 (81.39%)
Vertigo, Dizziness	7 (2.55%)
Otitis media	42 (15.33%)
Otitis externa	4 (1.46%)

5. 구강질환의 분포도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97명의 조사 대상자중 남자는 42.27%였으며 여자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7.73%로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의 남자가 29.27%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여자는 50대 28.57%로 높았다. 빈도가 높은 순서로 남자환자의 연령별분포는 50대, 6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연령분포는 20대, 30대, 50대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11).

Table 11. Distribution on Sex, Age of Laryngology Patients.

Male	Distribution	Ratio
0 (0.00%)	0-10 years old	1 (1.79%)
2 (4.88%)	11-20	4 (7.17%)
5 (12.20%)	21-30	12 (21.43%)
12 (29.27%)	31-40	8 (14.29%)
3 (7.32%)	41-50	7 (12.50%)
10 (24.39%)	51-60	16 (28.57%)
9 (21.95%)	61 years oldover	8 (14.29%)
41 (42.27%)	sex ratio	56 (57.73%)

2) 치료기간별 분포

치료기간은 1개월이내가 53.2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1개월이상 2개월이내가 25.18%, 2개월이상 3개월이내가 12.78%로 나타났다(Table 12).

Table 12. Distribution on Treatment Term of Laryngology Patients.

Term	Number	Ratio
1 month within	89	91.75%
1-2	5	5.15%
2-3	3	3.09%
Total	97	100%

3) 질환별 분포

구강 질환중에서 인후염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구강질환 환자중 20.6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매핵기가 16.49%, 구내염 15.46%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13).

Table 13. Frequency of Laryngo-Disease.

Classification	Frequency
Epipharyngitis	20 (20.62%)
Vocal cord polyp	5 (5.15%)
Stomatitis	15 (15.46%)
Glossitis	11 (11.34%)
Hoarseness	13 (13.40%)
Tonsillitis	8 (8.25%)
Diseases of the salivary gland	3 (3.09%)
Cleft lip	3 (3.09%)
Abnormal sensation pharyngolarylgeal region	16 (16.49%)
Dysphagia	3 (3.09%)

6. 피부질환의 분포도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304명의 조사 대상자중 남자는 37.17%였으며 여자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2.83%로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의 남자가 39.82%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여자는 20대 39.79%로 높았다. 빈도가 높은 순서로 남자환자의 연령별분포는 30대, 1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연령분포는 30대, 10대, 50대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14).

Table 14. Distribution on Sex, Age of Dermatology Patients.

Male	Distribution	Ratio
5 (4.42%)	0-10 years old	7 (3.66%)
13 (11.50%)	11-20	27 (14.14%)
45 (39.82%)	21-30	76 (39.79%)
24 (21.24%)	31-40	34 (17.80%)
12 (10.62%)	41-50	19 (9.95%)
10 (8.85%)	51-60	20 (10.47%)
4 (3.54%)	61 years oldover	8 (4.19%)
113 (37.17%)	sex ratio	191 (62.83%)

2) 치료기간별 분포

치료기간은 1개월이내가 83.5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1개월이상 2개월이내가 10.86%, 2개월이상 3개월이내가 2.63%로 나타났다(Table 15).

Table 15. Distribution on Treatment Term of Dermatology Patients.

Term	Number	Ratio
1 month within	254	83.55%
1-2	33	10.86%
2-3	8	2.63%
3-4	5	1.64%
4-5	2	0.66%
6 month over	2	0.66%
Total	304	100%

3) 질환별 분포

피부 질환중에서 여드름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피부질환 환자중 19.7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피부소양증이 16.45%, 아토피 피부염 15.13%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16).

Table 16. Frequency of Dermato-Disease.

Classification	Frequency
Alopecia	10 (3.29%)
Acne	60 (19.74%)
Seborrheic dermatitis	32 (10.53%)
Atopic derma.	46 (15.13%)
Psoriasis	20 (6.58%)
Eczema	17 (5.59%)
Urticaria	20 (6.58%)
Pruritus	50 (16.45%)
Ichthyosis	1 (0.33%)
Vasculitis	6 (1.97%)
Burgers dis.	1 (0.33%)
Behcet dis.	6 (1.97%)
Lupus	7 (2.30%)
Vitiligo vulgaris	11 (3.62%)
Osmidrosis	1 (0.33%)
Rosacea	1 (0.33%)
Pigmentation	7 (2.30%)
Dermatitis	1 (0.33%)
herpetiformis	3 (0.99%)
Pemphigus	4 (1.32%)
Herpes zoster	

Ⅳ. 考 察

총 대상환자의 질환별 분포에서 다른 질환에 비해서 안과질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의학적 치료방법이 안과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사시와 굴절장애로 인한 시력저하에 침치료가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발표[4,10,11]가 있었고 이러한 논문이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대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안과 질환에 편중된 경향을 띈

것으로 사려된다. 특히 안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0세 이하의 남, 여 환자가 남자는 31.93%, 여자는 47.90%로 다른 연령층 보다 월등하게 환자 수가 증가 되어 있는 점은 이러한 사시와 시력 장애에 대한 홍보 영향이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또한 사시는 미용적 효과에 미감하게 작용할 수 있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내원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려된다. 치료기간 분포에 있어서 코, 구강, 귀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들과 비교해 볼 때 1개월 이내가 59.70%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다음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가 17.10%로 다음순서를 나타내는 점은 다른 질환군과 같은 상황으로 별 특이 사항은 찾아 보기 힘들다. 치료 질환에 대한 분포를 보면 귀나 코 질환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어서 사시와 시력 장애 이외에도 결막염과 녹내장, 건성안, 색각장애, 백내장 등 여러 가지 질환의 환자들이 본 외관과로 내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아직까지도 현대 의학에서 안과의 대부분 질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한의학계에서도 안과 질환의 치료성적이 좋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 한방으로 치료 할 수 있는 질환의 개발 확대와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할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비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들은 주로 10세 이하에서 30대까지의 연령층을 갖고 있었으며 치료 질환은 비염과 부비동염에 국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침술과 한약이 비염 등의 질환에 탁효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3]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보면비염은 재발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비염의 원인이 알레르기일 확율이 높으며 알레르기 질환은 한방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보[1] 따르면 비염환자들의 내원 수가 해마다 신장세가 없이 평년 수준으로 내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한의학계에서도 알르레기 질환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고 알레르기를 정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이질환은 주로 이명, 난청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별 분포도 특이하게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이명, 난청이 여자들 보다 주로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되며 이명, 난청의 원인을 과도한 신경소모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 이명, 난청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까지 이명에 대한 검사나 유효한 치료법이 전무한 실정에서 한의학계가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해 나아갈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질환이 진단기기의 발달로 다양한 질병명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환은 증상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의 한의서의 증상과 동일한 것을 찾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다면 좋은 치료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려되며 질병명과 증명의 상관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5] 이외에도 꾸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부위의 질환에 비해 구강질환 내원 환자수가 상당히 적어서 질환이 적은 것 같은나 인통에 대한 연구논문[2,12]에 따르면 오히려 타 질환군보다 질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내원 환자가 적은 까닭은 예전과 비교해 볼 때 감염질환이 상당부분 사라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요즘처럼 위생개념이 높고 상하수도 시설이 거의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염보다는 과민한 신경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아프다성 구내염이나, 목의 성대부분을 혹사하여 생기는 성대 폴립이나 인통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핫병이나 과도한 신경

소모로 인한 매핵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피부질환군은 치료질환이 다른 질환군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다양하다. 하지만 치료기간은 대부분이 1개월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이 특징인데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피부질환은 치료효과가 다른 질환군에 비해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한방과 양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기존 피부질환에 대한 임상논문[6,7,8] 등의 치료효과나 치료기간에 관한 조사내용에 의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치료 성적이 향상된다면 어느 질환군보다도 더욱더 피부질환이 발전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여진다.

V. 結 論

1996년 3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 부속 시내한방병원 외관과에 내원한 환자 1695명을 대상으로 연도별, 성별, 질환별 분포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안, 이, 비, 인후, 피부과의 질환군별 분포도는 전체 내원 환자중에서 안과가 43.48%, 구강이 5.72%, 비질환 16.70%, 이질환 16.17%, 피부질환 17.94%로 나타났다.

2. 안질환군에서 발병환자의 성별 연령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남자, 여자군 모두 10세 이하가 각각 31.93%와 47.90%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치료기간은 1개월 이내가 59.70%로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며 질환별로는 사시가 54.00%, 시력장애가 26.46%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비질환군에서 발병환자의 성별 연령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남자군은 10세 이하가 여자군은 20대가 각각 30.00%와 21.56%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치료기간은 1개월 이내가 53.71%로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며 질환별로는 비염이 51.60%, 부비동염이 47.00%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이질환군에서 발병환자의 성별 연령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남자군은 40대가 여자군은 50대가 각각 30.54%와 31.78%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치료기간은 1개월 이내가 53.28%로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며 질환별로는 이명, 난청이 81.39%, 중이염이 15.33%의 순으로 나타났다.

5. 구강질환군에서 발병환자의 성별 연령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남자군은 30대가 여자군은 50대가 각각 29.27%와 28.57%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치료기간은 1개월 이내가 91.75%로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며 질환별로는 인후염이 20.62%, 매핵기가 16.49%의 순으로 나타났다.

6. 피부질환군에서 발병환자의 성별 연령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남자군은 20대가 여자군도 20대가 각각 39.82%와 39.79%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치료기간은 1개월 이내가 83.55%로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며 질환별로는 면포가 19.74%, 피부소양증이 16.45%의 순으로 나타났다.

參考文獻

1. 경희의료원: 경희의료원 연보, 서울, 경희의료원, 1997.
2. 김경준, 김중호, 채병윤 등: 인후질환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7:177-184, 1994.
3. 김남권, 임규상, 황충연: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0:367-382, 1997.

4. 김윤범, 채병윤: 녹풍에 대한 임상적 고찰, 9:143-148, 1996.
5. 김윤범, 채병윤: 삼출성 중이염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5:133-142, 1992.
6. 김중호, 채병윤: 건선환자의 치험 3예, 대한외관과학회지 3:127-134, 1990.
7. 김중호, 박항기, 채병윤: 소양증을 수반하는 피부질환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73-82, 1988.
8. 범희변: 면포증에 대한 치험소고, 대한외관과학회지 2:73-76, 1989.
9. 성현제외 18인: 한의학 중장기 예측 기획 연구,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1996.
10. 노석선, 신경숙, 이정숙: 마비성 사시환자 3예에 대한 임상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6:171-178, 1993.
11. 최은성, 유혜정, 채병윤: 시력저하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8:146-158, 1996.
12. 최인화, 김중호, 채병윤: 인통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4:65-74, 1991.